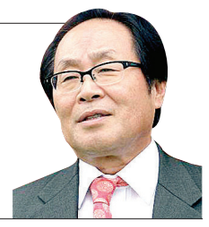
현불 논단

위험사회와 근대문명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울리히 벡의 저서 〈위험사회〉
"사회 발전할수록 위험" 주장
사람 의해 '생산된 위험' 의미

문명 발달… 파국 가져올 수도
코로나19도 인간이 만든 재앙
벡 주장 '성찰적 근대화' 필요

붓다의 가르침에 해답이 존재
연기론 바탕 '자비생명공동체'
이 같은 공동체 구현 실천을

온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필자가 위험이라는 단어에 따옴표를 사용한 것은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지은 〈위험사회(Risk Society)〉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86년에 출간된 삼십여 년이 지난 책이지만 저자의 뛰어난 통찰과 예지에 오늘날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울리히 벡은 두 번이나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 불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2008년 봉은사를 방문하면서 '무애거사'라는 법명을 가지기도 했다. 두 번째 방한 다음 해 2015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자 한국에서 불교식으로 추도식이 있었다. 울리히 벡의 말을 인용해 보자.

"지금 인류는 문명의 화산 위에 서 있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을 이용하거나 인류를 전통적 제약에서 해방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기술적, 경제적 발전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울리히 벡은 사회가 발전될수록 위험사회가 될 것이며, 그 위험은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평준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1세기의 위험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된 위험'이라는 것이다. 그는 근대문명의 발달로 인한 인류의 파국을 막기 위하여 '문명적 탈바꿈'을 주장하면서 '성찰적 근대화'를 주장한다.

오늘날 코로나19로 겪는 사람의 고통은 결코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이 만들어낸 생산된 위험이다. 오늘날 지구촌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고통은 벡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험사회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어쩌랴. 코로나19로 호모사피엔스가 움츠리고 있는 동안 지구별의 환경이 깨끗해졌다니.

과학 기술의 발전과 자연에 대한 조작기술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인간은 새로운 욕구를 계속 불러일으켰으며, 또한 새로운 욕구 충족은 새로운 욕구 창출의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요구 충족과 욕구 창출 사이에는 끊임없는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절벽을 향해 달리는 것이리라. 250여 년간 쌓아 올린 서구의 그 오만한 근대 과학문명이 이번 코로나19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던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성찰적 근대화'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 지혜의 보고는 붓다의 가르침에 가득 담겨있다. 울리히 벡이 불교에 깊은 친화력을 가진 것은 붓다의 지혜 때문이 아닌가 싶다.

붓다의 이상에는 생명, 생태 사회의 구현이 있다. 이것은 연기론에서 나온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연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의 상관성' 또는 '의존적 상호발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기론에서 '생명평화 자비 공동체 구현'이라는 과제가 등장한다.

생명평화 자비 공동체는 인간을 비롯하여 동식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가 어깨동무하며 함께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즉 중생 공동체이다. 모든 존재가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중생 공동체이다. 자비는 연민의 윤리를 넘어 우주의 우정이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평등심에서 출발한다.

코로나19가 종료한 이후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의 등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그 논의의 핵심을 보면 바로 '붓다 다르마'의 실천으로 귀결된다. '붓다 다르마'라는 큰 그릇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붓다의 지혜가 만든 크고 큰 우물의 물을 퍼내야 할 것이다. 제일 먼저 불교인 개개인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자비의 중생 공동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뇌하여야 할 것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좋은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

인생이라는 먼 길을 가려 하면 우선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한평생 마음 편하게 살려면 불필요한 짐은 덜어 내야하죠.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생각도 가볍고 단순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많고 생각만 복잡하면 진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주변 환경이 단순해야 생각도 단순해집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소유하기 짐이 되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물건도 그럴진데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대인관계는 자신과 상대의 생각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형태의 세계는 마음 세계의 그림자이므로 현실 세계가 부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세계가 부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를 내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를 위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생각을 부유하게 해야 하죠.

형편이 나쁜 사람은 나쁜 상념의 파동만을 감수해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 우주에는 무수한 전파 같은 정신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파동에 감응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파동을 받느냐 나쁜 파동을 받느냐가 정해지죠.



그림 · 최주현

좋은 파동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이 번영하고 싶다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좋은 상념의 파장을 항상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이 우주에 여러 가지로 충만한 상념의 파장이 다시 자신에게 끌려옵니다.

세계적 힐링 멘토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는 어느 인터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진동합니다. 주파수 진동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육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올바른 생각, 말 그리고 행동들이 진동하게 되면 삶 속에 같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면 풍요로움, 번영, 환희의 감정을 마음에 담게 되고 그것은 삶 속에서 생성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발산의 법칙'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산의 법칙이란 물리적으로는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곳에서 발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발산하는 것이지요. 생각이란 정신적 에너지의 집합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현상은 나 스스로가 끌어당긴 것입니다. 결국은 내 생각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불자 국회의원 당선자에 바란다

4월 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를 통해 약 30여 명의 불자 국회의원이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인물 면면들을 보면 훌륭한 인재들이 당선인으로서 이름을 올렸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당선인은 제20대 국회 정각회 부회장을 역임한 인물이고, 10년만에 정계에 복귀한 이광재 당선인은 힘들 때마다 사찰에서 마음을 추스르는 불자이다. 김두관 당선인은 2007년 조계종 前 종정 법전 스님에게 '웅기'라는 법명을 받고 불교에 귀의했다.

미래통합당을 대표하는 불자의원은 단연 주호영 당선인이다. 제20대 국회 정각회 전반기 회장을 역임한 그는 17대부터 이번 21대까지 내리 5선을 성공했다. 서병수, 김석기, 백종헌 당선인 등도 독실한 신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에도 독실한 불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더불어시민당 김병주 당선인은 지난해 불자대상 수상자이며, 미래한국당 조명희 당선인은 동화사신도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 국회의원 당선인은 5월 30일부터 4년간 제21대 국회의원 소임을 4년간 수행하게 된다. 바라는 점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이 아닌 정당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혐오하고 볼썽사납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이상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총선은 보여줬다.

나아가 조계종이 총선 전 각 정당에게 제시했던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 특히 조계종 등이 2008년부터 제정을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입법하길 기대한다.

백만원력결집불사 1주년에 부쳐

조계종이 백만원력결집불사를 선포한 지 꼭 1년이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100만명의 사부대중이 매일 100원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힘찬 내일을 열어가자"는 취지로 2019년 4월 17일 첫발을 내딛었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시도였다. 무엇보다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불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낸다는 점에서 모연 캠페인 자체가 또 하나의 불사에 다름 아니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컸다. △인도 부다가야 포교당 건립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입불(入佛) △계룡대 호국사 영외법당 건립 △불교 요양병원 건립 등 하나 같이 쉽지 않거나 대규모 불사인지라, 십시일반 모연으로는 현실화 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아무리 상징적인 수치라도 과연 100만 명이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회의감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1년, 우려는 불식됐다. 짧다면 짧은 기간 불자 30만 명이 동참했고 무려 110억여 원이 모연됐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을 위한 기초 작업은 이미 시작됐으며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도 가시적 성과를 앞두고 있다.

물론 안심하거나 낙관하기엔 이르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전국 교구본사와 유수사찰들, 조직화된 불심 돈독한 재가자들은 이미 상당수가 동참했다. 무관심한 불자들을 움직이고 냉담 불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연 방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도 고민해야 하며, 불교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얼마나 걸릴지 모를 기나긴 여정이지만, 백만 불자의 원력이 모이는 순간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윌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